

민주 원내대표 후보들 “내가 안철수와 협력 적임자” 민주당내 ‘친노세력’

진로 놓고 분화하나

김동철·우윤근·전병헌 의원 공식 출마 선언

저마다 ‘안철수 마케팅’ 표밭같이 분주 ‘호남안배론’ 거론 속 ‘선명야당론’ 맞서

오는 15일 치러지는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은 ‘안철수 마케팅’을 내세우며 표밭같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당내에서는 지난 전대에서 지도부에 호남이 진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호남 안배론’이 부상하고 있어 상당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7일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들은 자신이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 협력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

했다.

우선, 김동철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안 의원은 야권의 중요한 자산”이라며 “진정성을 가지고 안 의원과 소통을 한다면 야권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병헌 의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안 의원은 야권의 정치적인 동반자로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민주당과의 경쟁적 관계가 부각되고 있지만, 민주당과 함께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윤근 의원은 국회에서 가진 출마 기자회견에서 “안 의원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동반자로 협력할 부분이 많지만 경쟁할 부분도 많다”며 “결국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랐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지도부에 호남이 진입하지 못한 것과 관련, 당내에서는 ‘호남 안배론’이 거론되고 있어 원내대표 경선에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일단, 전남의 우윤근 의원과 광주 김동철 의원은 ‘호남 안배론’을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지만 은근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안정을 이루고 호남을 두고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 일전을 벌여야 한다는 점에서 ‘호남 원내대표론’이 상당한 설득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도부에 호남이 진출하지 못하면서 원내대표는 호남이 가져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흐름이 있다”며 “박빙의 선거구도에서 이 같은 변수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병헌 의원은 ‘선명 야당론’을 내세우며 ‘호남 배려론’ 차단에 나서고 있다. 전 의원은 지난 6일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오만한 독주에 맞서 싸울 때는 단호하게, 협상할 때는 치열하게, 양보할 때는 전략적으로 임하겠다”며 ‘선명 야당론’을 제기했다.

그는 특히, “단 한 명을 뽑는 원내대표는 계파나 지역 안배의 대상이 아니다”고 ‘호남 배려론’에 정면으로 맞섰다.

한편, 김동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127명 모두가 주류가 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의미 있는 승리를 거두고 3년 후에는 의회 권력을 교체, 그 힘을 바탕으로 4년 후 행정부 권력을 교체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윤근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으로 민주당을 단합시켜 강한 야당으로 만들어 내겠다”며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하지만 김 후보와 우 후보의 단일화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김 후보가 단일화보다는 결선 투표를 통해 정당당당하게 경쟁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을 매개로 하는 단일화가 오히려 역풍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지만 호남 표심의 분열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김한길 대표·안철수 의원과 관계따라 분열 조짐

민주당 5·4 전당대회를 계기로 당의 주류에서 밀려난 ‘친노(친노무현) 진영’이 정치적 진로를 놓고 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한길 대표를 정점으로 한 당내 ‘신(新)주류’와의 관계,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관계 설정 등을 놓고 ‘세 포분열’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당내 친노 세력은 김한길 대표에 비교적 우호적인 ‘온건파’와 ‘불신의 눈길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강경파’로 갈라지고 있다는 관측이다.

온건파는 범주류, 범친노로 불리면서 친노 핵심파는 일정 정도 거리가 있는 인사들로 이번 대표 경선 과정에서도 중립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강경파는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참모 출신 및 이해한 전 대표 직계 인사들로 이들은 전대 과정에서 이 전 대표의 측근인 윤호중 의원을 적극 지지하며 ‘세 걸잡’을 시도했다.

하지만 김한길 대표가 전날 ‘친노’로 분류돼온 배재정 의원을 대변인에서 임명하면서 포용과 화합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당내 친노 강경파의 입지는 상당 부분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당장 오는 15일 원내대표 경선에서 친노 진영이 단일 대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를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마저 나오고 있다.

안 의원의 관계 설정을 놓고도 친노 진영의 내부 균열이 감지된다. 친노 강경파는 일단, 안 의원에게 상당한 경계감을 표출하고 있다.

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적자’로 불리는 안 지사는 이날 “안 의원이 민주당과 함께 해야 한다”며 안 의원의 ‘입당론’을 주장했다. 안 의원을 끌어안고 가야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의 시너지 효과가 크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친노 진영은 오는 23일 예정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4주기를 기해 한 자리에 모일 예정이지만 향후 정치적 진로나 행보를 놓고는 예전처럼 한 목소리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문성근 전 대표표권한대행은 7일 탈당신고를 민주당 부산시당에 정식 제출했다. 그는 이날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는 “일단 당 밖에서 시민정치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의 연대를 위한 촉매제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안철수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 확정

무소속 안철수(사진) 의원이 활동하게 될 국회 상임위원회가 보건복지위원회로 7일 확정됐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안 의원의 상임위가 복지위로 결정됐다”며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도 이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4·24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안 의원은 이로써 국회 입성 2주만에 상임위를 배정받게 됐다. 박 원내대표에 따르면 원내 보건복지위 소속인 민주당 이화영 의원이 안 의원에게 상임위를 양보하고 정무위원회로 옮겨 가기로 하고, 안 의원이 그 자리에 가기로 해 해법을 찾았다.

이 의원은 최근 한 인터넷 언론과

의 인터뷰에서 안 의원이 상임위 배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것과 관련, “지켜 보면서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다”며 “나라도 상임위를 바꿔줄까 하는 생각을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안 의원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뒤 의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안 의원 측 관계자는 복지위 배정에 대해 “희망 상임위 중 하나였다”며 “민생의 최전선 분야인 복지위에서 활동하게 돼 의미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에서 두번째)와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에서 추경 예산안 처리 등 합의 사항에 대해 설명한 뒤 합의를 들어보고 있다. 왼쪽은 윤관석 민주당 원내대변인, 오른쪽은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임내현, 대구서 ‘영·호남 대학생 교류 행사’

대구에서 영·호남 지역 대학생들이 동·서간 상생과 화합의 의지를 다지는 특별한 행사를 갖는다.

7일 저녁 7시 대구 중구 덕영치과에서 ‘제11회 영·호남 교류 대학생 환영의 밤’ 행사가 열린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민주당 임내현(광주 북구을·사진) 국회의원이 지난 2003년 대구고검장 재직 당시 전남대와 경북대, 민족통일협의회에 제안해 성사된 행사다.

이후 영·호남 지역 대학생들은 매

년 이 행사를 통해 동·서간 상생과 화합의 토대를 마련하고 통일을 위한 초석을 다져왔다. 이날 행사에는 임내현 의원과 송세달 대구시의회 부의장, 경북대 강호을 학생처장, 대구시청 공무원, 영·호남 지역 대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여야, 개헌 논의 본격화

의원·전문가 등 30명 ‘헌법개정연구회’ 구성

국회 차원의 체계적인 개헌 논의를 위해 국회의원 직속으로 ‘헌법개정연구회’가 설치된다. 오는 15일까지 구성되는 개헌연구회는 여야 의원 20명과 민간전문가 10명 등 30명으로 구성된다.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7일 오후 국회에서 회담을 열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양당이 밝혔다.

이는 지난날 12일 여야 대표와 원

내대표, 정책위의장이 참여한 ‘6인 협의체’의 개헌 논의 기구 설치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다.

여야 합의로 국회에 개헌 논의 기구가 구성되는 것은 처음이어서 정치권 내 개헌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개헌연구회 회장은 양당이 공동으로 맡고, 대외적인 회장은 다수당이 새누리당에서 맡기로 했다.

양당은 우리나라의 통치·권력구조

와 관련한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고, 산발적인 논의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논의 기구를 구성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8대 국회 때 국회의장 산하에 ‘헌법연구자문위원회’가 설치된 적 있으나, 외부 전문가들로만 구성돼 개헌 논의가 탄력을 받지 못했다. 또 여야 의원들이 산발적으로 개헌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여야 합의 도출에는 이르지 못해 번번이 무산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시의회 해외연수 정책반영 ‘미흡’

‘참여자치 21’ 6년치 분석

‘참여자치 21’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지난 2006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광주시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견문 확대를 통한 전문성 확보라는 기본취지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광주시의회는 이 기간 총 43회의 연수가 있었고, 연수 기간은 평균 6.6일로 조사됐다. 조사기간 내 연수비용 총 소요액은 2억6339만원으로, 이를 의원 1인당 평균 연수비용으로 나뉘면 188만4000원이었다.

참여자치 21은 계획 따로, 일정 따로였을 뿐만 아니라 결과 보고서는 절반 이상이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연수 결과 보고서는 총

43건의 연수 중 20건밖에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의 46.5%에 불과해 절반 이상이 의무사항인 보고서조차 제출하지 않았다.

특히 연수 후 정책반영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는 조사기간 내 총 43건의 연수 중 단 2건뿐인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광주시의회는 “6대의 회 들어 해외연수도 많진 않았지만, 참여자치 21의 분석 중 결과 보고서가 46.5%밖에 불과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석을 잘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소섭 운영위원장은 “의원 연수 중 집행부와 다른 기관들의 해외행사에 참석하는 연수는 결과보고서를 쓰지 않아도 되는 데 이러한 부분까지 포함해 분석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 동구 제-008호(동구 경제과 608-2504)

유)그랜드대부

최저이자
당일대출!

- ▶ 건물/상가 추가대출
- ▶ 아파트/주택 추가대출
- ▶ 전. 담. 나대지
- ▶ 공유지분/미준공건물
- ▶ 부동산 취득자금
- ▶ 사업자금

※ 자사대출/ 자유상환/ 수수료없음 ※
최저 월1%~월3% 최고 연39%이내

광주 동구 불로동 121번지 그랜드힐 116호
062)228-0114

선암동 전원 주택용지 분양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11가구)
분양가격 전용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 면적 약90평~280평(분할·합병가능)
현 토목공사 80%진행중

단지설명 자연속 힐링 주거단지

1. 분양면적은 전체가 쓸 수 있는 전용면적입니다.
2. 각 필지별 상·하수도관려 연결공사 완료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완료(각종세금 납부완료)
4. 각 필지별 6m도로 접

찾아오시는길 선운지구 영광
어등산골프장 호남대학교
어등산 빌리지

도심속 친환경 명품주거타운

선운공인중개사 010-5166-0013
062)952-5577

NPL(부실채권)과 특수물건만 취급

(주)오천경매

- 비법 배우면서 투자
- 실전 사례 교육
- 1인 1물건 추천
- 단독/공동투자 가능
- 개인지도 1,100만원
- 문의 010-3605-5000